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3월 생산자물가, 전월비 하락.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둔화
 - 중국, 대미 관세율 125%로 상향. 미국은 무역협상 낙관론 표명
 - 연준 주요 인사,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성장세 둔화 우려
 - 미국 주요 은행 1분기 실적, 예상치 상회
- **국제금융시장:** 중국의 대미 관세 보복에도 불구하고, 무역협상 기대감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1.8%], 달러화 약세[-0.8%], 금리 상승[+7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은행주 실적개선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등으로 약보합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 하락과 소비자심리 둔화 등으로 약세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4%, 0.6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인사의 성장둔화 우려 발언 등을 반영
독일은 ECB의 정책지원 기대감 등으로 1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19.7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17.4원, 0.25% 하락). 한국 CDS 하락

		4/11일	4/10일	전일대비			4/11일	4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364.4	5,268.1	+1.81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9%	4.42%	+7bp
	유럽	480.80	487.28	-0.10%		독일	2.57%	2.58%	-1bp
	중국	3,238.2	3,223.6	+0.45%		영국	4.75%	4.64%	+11bp
	일본	33,586	34,609	-2.96%	CDS 5y	한국	36bp	37bp	-1bp
	한국	2,432.7	2,445.1	-0.50%		중국	73bp	78bp	-5bp
환율	달러지수	100.10	100.99	-0.76%	위험 지표	EMBI+	-	422	-
	유로화	1.1355	1.1201	+1.37%		VIX	37.56	40.72	-7.76%
	엔화	143.54	144.45	+0.63%		WTI유	61.50	60.07	+2.38%
	위안화	7.2921	7.3175	+0.35%	원자재	구리	452.3	433.7	+4.30%
	원화	1,421.0	1,456.4	+2.43%		금	3,237.6	3,176.2	+1.9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월 생산자물가, 전월비 하락.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둔화

- 3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의 월간 상승률은 -0.4%로 전월(0.1%) 및 예상치(0.2%)를 크게 하회. 연간 상승률도 2.7%로 전월(3.2%) 대비 둔화. 근원 PPI는 각각 전월비 0.1%(전월 0.4%), 전년비 3.4%(전월 3.5%) 상승
- 항목별로는 상품 물가가 식품 및 원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0.9% 내렸으며, 서비스 물가도 유통서비스 마진 등이 축소되면서 전월비 0.2% 하락
- Nationwide는 관세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면서,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. Raymond James 역시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
- 한편,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(예비치)는 50.8로 전월(57.0) 및 예상치(53.8) 대비 크게 둔화. 현재 경제여건지수는 63.8→56.5, 소비자기대지수는 52.6→47.2로 하락. 1년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5.0%→6.7%, 5년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.1%→4.4%로 상승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주요 인사,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성장세 둔화 우려

-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금년 물가 상승률이 3.5~4.0%로 오르고 실업률도 현재의 4.2%에서 4.5~5.0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. 또한 이민자 감소와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%를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. 단,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
-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 역시 관세 인상이 전체 수입의 44%에 달하는 중간재에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광범위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. 금년 물가상승률이 3%를 크게 상회하면서 성장도 둔화되겠으나,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
- 미네아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는 미국 국내시장에서 아직 큰 혼란이 감지되지는 않았으면서 연준 또는 재무부의 개입은 정말 필요할 때 마지못해 (reluctantly)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

■ 중국, 대미 관세율 84%에서 125%로 상향. 미국은 무역협상 낙관론 표명

- 중국 국무원은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%에서 125%로 상향한다고 발표. 또한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신경쓰지 않겠다고 설명. 중국 당국은 미국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국제 무역규칙과 상식을 심각하게 위반한 강압적인 조치라고 비난
- 다만,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해 낙관적(optimistic)이며 협상을 위해 열려있다고 언급
- 시장에서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. Blackrock의 래리 핑크 CEO는 현재 경기침체 상황이거나, 이에 매우 근접하다고 언급. UK Steel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제한되면서 철강 등을 다른 국가로 덤핑 판매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해외 기업들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

■ 미국 주요 은행 1분기 실적, 예상치 상회

- JPMorgan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이 5.07달러로 예상치(4.63달러)를 상회하고, Well Fargo, Morgan Stanley, BlackRock의 실적도 개선. 다만, JPMorgan의 다이먼 CEO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, 개인 대출금 상환 지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

■ 푸틴, 트럼프 특사와 회담을 갖고 러우전쟁 종전 방안 논의

-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회담을 갖고 러우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. 앞서 위트코프는 가장 빠른 종전 방법은 러시아가 합병을 시도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

■ ECB 라가르드 총재,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

-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,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경우 ECB는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4/14~18일,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소매판매, 산업생산, 연준 파월의장 발언(4/16일), 부활절 휴장(4/18일)
- 중국 1분기 GDP(4/16일), ECB 금리결정(4/17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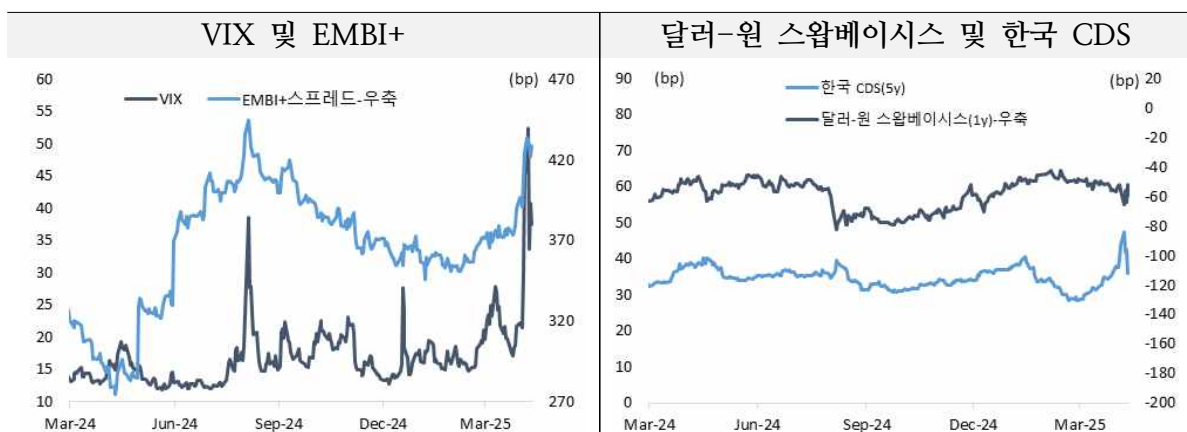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